

# “나도 정선 스쳐가는 한줌 바람일뿐”

## 산문박의 單

### 정선아리 명창 최봉출 翁

삼십육년간 피지 못하던 무궁화 꽃은  
올유년 광활 심오일에 만발하였네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이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날 넘겨주게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 정선아리리의 첫번째 기능보유자  
인 최봉출 翁(80)은 다시 광복절을 맞으며 아리랑 가락을 불  
러본다. 해방되던 해에 자신이 지은 가락이다. 일제로부터 29  
번이나 징용 영장을 받았지만 번번히 신으로 들로 피신을 다  
니며 끝내 용하지 않았던 청년기의 고통이 해방을 맞아 한 소  
절의 아리랑 가락으로 터져 나왔던 것이다.

정선 아리리.  
정선 사람들은 누구나 한 두 가락씩 읊을 줄 알뿐 아니라  
그 가락 속에서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다는 노래다.  
5백년을 넘는 세월동안 정선 사람들의 숨결로 이어져 온 정  
선 아리리 가락을 평생토록 불러 온 최봉은 “나도 정선을 스  
쳐 가는 한 줌의 바람일 뿐”이라는 의미 심장한 말을 먼저 꺼  
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이 자연의 한 부분이라면 그  
사람이 대를 이어가며 부르는 노래 역시 자연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 소리는 생명을 갖는 것이며 절대적인 완성도 없다  
는 설명이다. 때문에 최봉은 정선 아리리를 사람과 자연의 노  
래라고 강조한다.

최봉은 일곱살에 정명복 명창의 술하로 양자를 들어 아리리  
를 배우기 시작했다. 정명복 명창은 고명덕, 김찬유, 박순태  
명창과 더불어 정선 아리리의 대표적인 소리꾼이다. 아리리는  
민초들의 노래에서 굳이 명창의 죽보를 따지 않았지만 조선  
말기부터 이름난 명창들은 건국한 이력을 남겼다. 따지자면  
최봉은 근현대 정선 아리리의 명창 순서에서 다섯번째로 꼽히  
고 생존 명창으로는 최고령인 셈이다.

일곱살부터 시작한 최봉의 아리리 실력은 1961년 장선군이  
주최한 민요경쟁대회에서 1등으로 뽑히면서 그 진가를 더 넓  
혔다. 70년에는 강원도로부터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로 선정  
돼 요즘은 매달 5만 원의 지원금도 받고 있다.

최봉은 평생 아리리만 불렀다. 특별한 생업을 가질 수도 없  
는 길이었다. 들판에서 큰 일을 할 때 최봉은 아리리 가락을  
일꾼들의 신명을 돋우고 이를 잊는 모일이나 잔치 관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 있었다.

정선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나 모여 있을 때나 아리리를 즐긴  
다. 사글세 심정에도 아리리가 없었고 흥겨운 마당에도 아라  
리의 화창이 빠질 수 없는 정선아리기에 최봉의 삶은 1천2백여  
수의 아리리 가락 그 자체다.

“적적할 때 혼자 부르던 여럿이 흥을 잡고 부르던 아리리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놓습니다. 마음 속의 기쁨이나 고  
통을 밖으로 꺼내 버린다는 것은 바로 마음을 비운다는 의미

평생 부른 아리리 1천2백여 수  
가락마다 민초들의 애환 담겨  
들판의 일꾼들 신명 돋우고  
고동받는 이들에 위로의 소리

93년 문 연 '정선아리랑학교'  
매년 전국서 2백여명 동참

로 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비우면 어찌 됩니까. 시원  
해요 그 시원한 곳에서 사랑도 나오고 새로운 힘도 나오고  
충실의 기쁨도 나옵니다. 그뿐입니까. 고단한 인생의 회한과  
아름다운 산수 자연의 감탄도 다 한 가락의 아리리 끝에서 솟  
아오르는 겁니다. 아리리 가락 한대륙 한대륙마다 세상사는  
이치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최봉에게 있어 아리리는 세상사와 자연, 그리고 과거와 미  
래를 분출시키는 생당이다. 마음을 비우는 구도행으로까지  
상승되는 아리리의 힘은 팔순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20년은 젊  
게 보이는 최봉의 외모에서도 잘 나타난다. 아리리로 비워낸  
마음이 아우라지 강물 같이 맑고 평온한데 몸이 늙었는가.

최봉은 정선 아리리가 정선이라는 지방의 독특한 역사와 문  
화를 간직하고 발전되어 왔다는 특장을 인정하는 만큼이나 정  
선 아리리는 온 국민의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힘주어 말했다.  
민초들의 노래에는 민초의 삶에 깃든 애환이 있을 뿐 지역과  
사상 같은 차별의 틈은 있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최봉은 93년부터 문을 연 '정선아리랑 학교'의 교장을 맡고  
있다. 매년 8월에 4일씩 여는 아리랑 학교에는 전국에서 2백  
여명씩 몰려 온다. 최봉은 매주 수요일마다 정선문화예술회관  
에서 지역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리리를 강습하면서 “아리리의  
본 고장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누누히  
강조한다. 본 고장의 소리가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신념 때문  
이다.

최봉에게는 사무치는 열정이 있다.  
“내가 해방의 기쁨을 한 소절의 아리리로 읊었듯이 본단의  
철조방이 무너지는 감격을 아리리로 부르며 북새판을 밟아 보  
고 싶습니다.”

글=임인태 · 사진=고영태 기자 (ylim@buddhapa.com)



○96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하며 구전되어 온 정선지방의 아리리는 민초들의 삶과 애환을 담은 민요다. 강  
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된 정선아리리의 최고령 기능보유자 최봉출 翁이 1945년 해방의 기쁨을 가시로  
들어 부른 아리리 한 가락을 부르며 남북통일을 염원하고 있다.

## 취재수첩 정선아리리란 5백년 전부터 구전 향토민요 愁心·산수·무상 등 주제 다양

정선 아리리의 역사는 5백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이 개국 된 뒤 태조의 부름  
에 응하지 않은 고려의 대표적인 충신은  
72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김위, 진오  
현, 김순환, 고천우, 이수생, 신안, 변귀  
수 등 일곱 충신은 비술을 버리고 개성  
에서 정선 남면 낙동리로 들어와 산나물  
을 뜯어 먹으며 죽을 때까지 ‘불사이군’

의 절개를 지켰다. 그들이 살던 동네가  
지금의 정선군 남면 거칠현동(居七縣洞)  
이다.  
“비가 올라나 눈이 올라나 연수장마  
지려나  
만수산 겹은 구름이 막 모여들다.  
명사십리 아리리라는 애당화는 왜 피며  
모흔삼일이 아니라려는 두견새는 왜

들어”  
정선 아리리 채록집에 제일 먼저 등장  
하는 이 가사는 일곱충신들이 나라와 자  
신의 처지를 절규하며 지은 것으로 전해  
진다. 때문에 아리리의 발상지를 거칠현  
동으로 여기고 있다.

정선 아리리는 현재까지 1천2백여수가  
채록됐다. 수심(愁心), 산수(山水), 애장,  
차세, 무상 등 주제가 다양하다. 가사의  
내용에 따라 빠른 음절로 부르기도 하고  
느리게 부르기도 하며 역음아리리란 특  
색한 형태도 있다. 역음아리리란 본래의  
아리리 보다 길게 가사를 엮어 처음에는  
빠른 음절로 엮어 내다가 나중에 본래의  
아리리 형식으로 돌아 오는 형법이다.



○1993년부터 개  
설된 정선아리랑  
학교에는 매년 2백  
여명이 넘는 사람들  
이 찾아와 아리리  
를 배운다. 첫번째  
아리랑학교에서 아  
리리를 전수받은  
사람들과 최봉출 翁  
(아래줄 가운데).



## 영동 여성입상

■석불문화연구회 답사  
충북 영동시 신안리 반현부락에 있는  
미륵석불입상은 뛰어난 여성보살이다.  
신안리 도로변에 인접한 민가 근처 약  
3평의 노천 보호각에 안치돼 있는 여성  
보살은 높이가 2m18cm, 폭은 73cm, 머리  
의 높이가 60cm, 광경은 71cm이다. 머리  
에는 보관을 쓰고 있으며 광배가 있다.  
얼굴빛 푸르스름한 색칠을 하는데 각종 무  
늬가 화려하고 선명한 것이 특징이다.  
석불의 재질은 화강암이며 가사는 두  
껍게 처리한 통견양식을 갖추고 있다.  
여성보살은 장식물의 화려함이 보이며  
목걸이를 걸치고 가슴을 U자형으로 길

## 현대불교 98년 기획 돌부처를 찾습니다

### 장식흔적·광배 화려

#### 민심통일 위해 조성 고려 후기 석불 추정

이 드러났다. 오른손은 아래로 내렸는데  
그 길이가 1m7cm에 이른다. 왼손은 시무  
외인을 하고 있다.  
여성보살은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  
지만 북부위에 약간 보수한 자국이 남아  
있고 하체의 일부가 무릎까지 묻혀있어  
균형미가 떨어진다.  
석불문화연구회 유영열회원은 “화려한  
장식과 색깔로 보아 여성보살이다”며  
“보살의 미적감각과 조각기법 형태들이  
매끄럽지 않고 인위적인 것으로 보이 지

방문화가 발전했던 고려후반기시대에 조  
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조성동기는 알 수 없으나 반현부락에  
서 주민들이 마을의 수호신으로 생각하  
고 3년에 한번씩 길일을 정하여 북새를  
기원하며 재를 올린다고 한다.  
특히 매월 음력 14일 밤이면 미륵부처  
님이 화현하여 주위를 돌아다닌다는 전  
설이 있는데 주민들은 이날 마을의 번영  
과 평화를 기원하며 공양물을 차리고 기  
도한다고 한다.  
원래는 남성입상도 함께 있었다고 하  
는데 이 보살은 민심의통일을 위한 토호  
세력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관측된다.  
정리=김원우 기자

## 정토사 석불은 조선시대 조성 약사여래불 고증: 정영호 박사 눈감고 살짝웃는 입술 '이제'



서울 광화동 정토사  
석불(본지 181호 24면  
참조)은 상하가 아주 좋  
다. 손에 보병을 들고 있  
고 심도가 없어 약사여  
래불이 확실하다. 원래  
여래불은 장식이 없는데  
염주목걸이를 하고 있고 좌상의 경우 약함을  
들고 있는 것이 통례인데도 약함을 들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나팔에 육계가 유난히 큰족하게 솟아 있고  
눈을 감고 입술을 가늘게 처하여 살짝 웃음  
짓고 있는 모습이 이채롭다.  
정토사 약사여래불은 우주들이 형식화되고  
조각이 세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  
조성된 불상이다. <한국고대미술연구소>



돌부처 찾기 제보 받습니다 (02)722-4162